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2년 4월호

Contents

〈통계 요약〉	1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2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5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9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10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13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15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8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23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24



〈통계 요약〉

한일 무역의 2022년 3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63,485	18.2	63,600	27.9	-115
일본 부분	2,763	14.4	5,332	10.3	-2,569
일본 비중	4.4		8.4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3월 상황

	2021년 3월	2022년 3월	증감률
수출(백만¥, %)	7,377,561	8,460,031	14.3
수입(백만¥, %)	6,761,931	8,874,137	31.2
수지(백만¥, %)	615,630	-414,106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4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12월		2022년 1월		2022년 2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18,134	2,955	6,988	4,768	7,613	2,604
한국 부분(억¥)	51	56	-229	69	-168	102
한국 비중(%)	0.3	1.9	-	1.4	-	3.9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2월 8일, 3월 8일, 4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3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1년3월	2022년3월	증감률		2021년3월	2022년3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74,604	96,768	29.7	전체	12,276	66,100	438.4
방한 일본인	949	1,397	47.2	방일 한국인	1,956	6,700	242.5
일본인 비중	1.27	1.44		한국인 비중	15.93	10.14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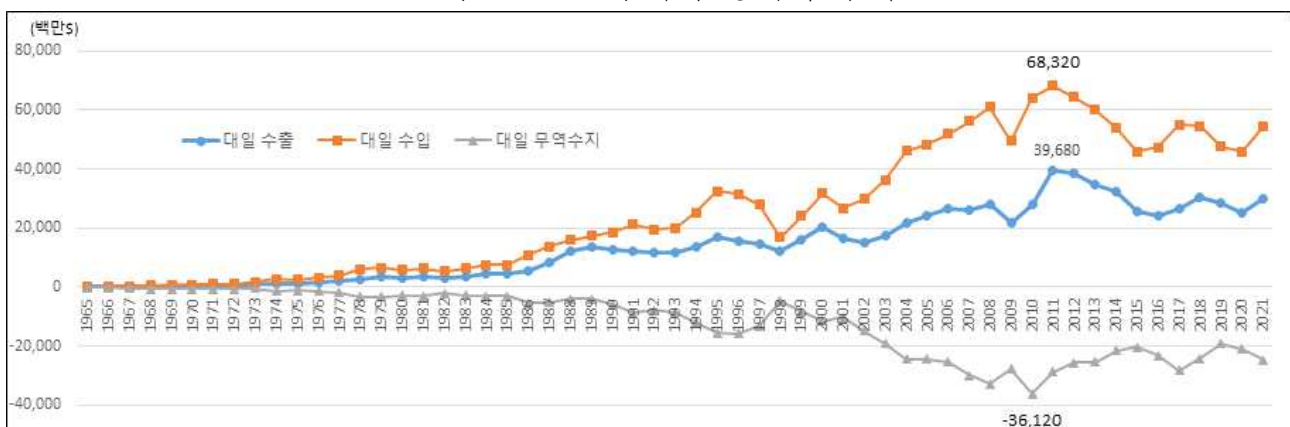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2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6.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2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1년에는 대일 수출(300.6억 달러)과 수입(546.4억 달러)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수입 증가액이 수출 증가액보다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245.8억 달러)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2년 3월에는 전월대비 수출 및 수입이 증가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3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3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또는 정체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3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2년 3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2년 3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4.4%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10.3%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2년 3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63,485	18.2	63,600	27.9	-115
일본 부분	2,763	14.4	5,332	10.3	-2,569
일본 비중	4.4		8.4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2년 3월에 한국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8.2% 증가하여 634.9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출은 동(同) 14.4% 증가하여 27.6억 달러가 되었음
- 2022년 3월에 한국전체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27.9% 증가하여 636.0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입은 동(同) 10.3% 증가하여 53.3억 달러가 되었음

- 2022년 3월에 한국 전체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였고, 대일 무역수지는 25.7억 달러 적자였음
 - 2022년 3월에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4%였고, 수입 경우는 8.4%였음
- <표2> 및 <표3>은 2022년 3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경우는 8개 품목이, 수입 경우는 7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2> 한국의 2022년 3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1년 3월(백만\$, %)			2022년 3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415	-2.8	-2,420	2,763	14.4	-2,569
1	철강제품	323	14.0	-150	339	4.9	-438
2	정밀화학제품	256	19.3	-152	313	22.2	-110
3	광물성연료	248	-1.7	206	309	24.4	257
4	석유화학제품	125	26.9	-198	232	85.5	-87
5	산업용전자제품	175	-14.6	-86	205	16.8	-31
6	전자부품	168	13.9	-503	196	17.0	-588
7	금속광물	158	66.5	86	149	-5.9	21
8	농산물	101	-1.2	77	95	-5.4	66
9	기초산업기계	62	-15.4	-200	82	33.6	-136
10	기계요소공구및금형	75	-12.8	-71	80	6.3	-57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2년 3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1년 3월(백만\$, %)			2022년 3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4,834	10.1	-2,420	5,332	10.3	-2,569
1	전자부품	670	1.0	-503	784	17.1	-588
2	철강제품	473	-8.3	-150	777	64.2	-438
3	정밀기계	645	30.2	-595	734	13.9	-673
4	정밀화학제품	408	8.2	-152	423	3.8	-110
5	석유화학제품	323	19.4	-198	319	-1.2	-87
6	산업용전자제품	261	-9.6	-86	236	-9.5	-31
7	산업기계	184	-11.9	-119	231	25.1	-152
8	플라스틱제품	225	20.9	-157	230	1.8	-161
9	기초산업기계	261	25.0	-200	218	-16.5	-136
10	비철금속제품	155	34.6	-98	169	9.0	-99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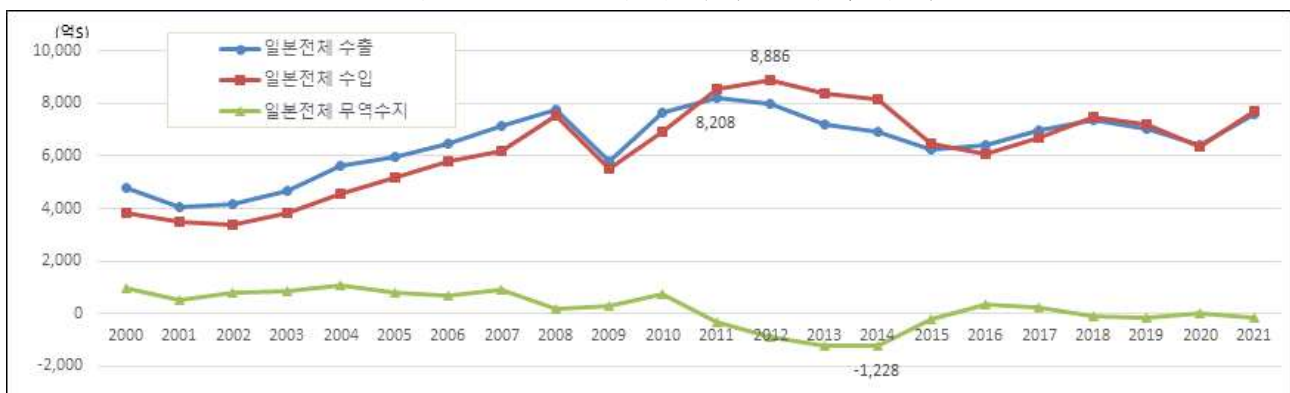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석유화학제품(85.5%), 기초산업기계(33.6%), 광물성 연료(24.4%)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금속광물(-5.9%), 농산물(-5.4%) 2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철강제품(64.2%), 산업기계(25.1%), 전자부품(17.1%) 등 7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기초산업기계(-16.5%), 산업용전자제품(-9.5%), 석유화학제품(-1.2%) 3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 2020년 흑자, 2021년 적자로 나타남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399억 달러, 수입은 6,357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42억 달러 흑자였음
- 2021년 일본전체 수출은 7,586억 달러, 수입은 7,716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무역수지는 130억 달러 적자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3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3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흑자에서 당월 적자로 전환됨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3월 상황

	2021년 3월	2022년 3월	증감률
수출(백만¥, %)	7,377,561	8,460,031	14.3
수입(백만¥, %)	6,761,931	8,874,137	31.2
수지(백만¥, %)	615,630	-414,106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4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반도체등제조장치, 철강, 광물성연료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4.3% 증가하여 8조 4,600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1.2% 증가하여 8조 8,741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6,156억 엔 흑자에서 당월 4,141억 엔 적자로 전환되었음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3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감소 지역도 있지만 수출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6.1%, 수입의 46.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6,542억 엔 흑자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19.9%, 수입의 21.2%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2,008억 엔이었음
 - 홍콩은 수출의 4.1%, 수입의 0.1%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흑자는 3,399억 엔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6.9%, 수입의 4.2%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2,116억 엔이었음
 - 한국은 수출의 7.4%, 수입의 4.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2,599억 엔이었음
 - 미국은 수출의 18.1%, 수입의 10.6%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5,922억 엔이었음
 - 서유럽 전체에 대해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2.7%, 수입의 2.8%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9%, 수입의 0.8%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3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8,460,031	100.0	14.7	8,874,137	100.0	31.2	-414,106	-
아시아	4,748,343	56.1	12.4	4,094,162	46.1	22.4	654,181	-25.5
중국	1,681,577	19.9	2.9	1,882,341	21.2	19.0	-200,764	-
홍콩	349,069	4.1	9.1	9,169	0.1	-12.1	339,900	9.9
대만	582,013	6.9	18.6	370,385	4.2	43.2	211,628	-8.9
대한민국	624,733	7.4	26.3	364,847	4.1	23.9	259,886	29.7
싱가포르	247,575	2.9	27.6	114,758	1.3	44.7	132,817	15.8
태국	341,168	4.0	11.7	287,540	3.2	7.7	53,628	39.8
말레이시아	193,712	2.3	19.3	250,736	2.8	28.8	-57,024	76.2
인도네시아	165,480	2.0	32.6	271,342	3.1	43.4	-105,862	64.2
필리핀	135,223	1.6	27.7	120,219	1.4	9.9	15,004	-
베트남	203,136	2.4	13.1	245,882	2.8	11.6	-42,746	5.0
인도	142,003	1.7	-1.3	78,056	0.9	24.2	63,947	-21.0
대양주	225,620	2.7	10.6	777,007	8.8	83.6	-551,387	151.4
호주	171,414	2.0	7.0	701,580	7.9	86.3	-530,166	145.1
뉴질랜드	31,398	0.4	27.7	28,000	0.3	26.5	3,398	38.3
북미	1,642,965	19.4	23.6	1,103,570	12.4	22.4	539,395	26.0
미국	1,534,626	18.1	23.8	942,459	10.6	18.4	592,167	33.6
캐나다	108,339	1.3	19.8	160,296	1.8	52.1	-51,957	247.0
중남미	289,390	3.4	0.3	380,315	4.3	30.9	-90,925	4125.6
서유럽	980,877	11.6	19.9	1,065,630	12.0	13.4	-84,753	-30.3
독일	231,357	2.7	13.3	250,187	2.8	13.0	-18,830	10.3
영국	156,638	1.9	75.7	68,142	0.8	1.1	88,496	306.2
프랑스	70,390	0.8	0.5	119,840	1.4	22.4	-49,450	77.5
네덜란드	147,853	1.7	11.1	35,640	0.4	-15.5	112,213	23.5
이탈리아	58,123	0.7	13.0	111,936	1.3	1.6	-53,813	-8.3
벨기에	92,449	1.1	22.1	60,457	0.7	39.0	31,992	-0.8
스위스	38,534	0.5	-20.6	81,403	0.9	-10.4	-42,869	1.3
스웨덴	14,534	0.2	-16.1	49,452	0.6	31.6	-34,918	72.5
아일랜드	30,694	0.4	275.7	85,153	1.0	0.5	-54,459	-28.9
스페인	24,111	0.3	-16.1	74,946	0.8	109.3	-50,835	619.4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68,770	2.0	-2.1	262,054	3.0	62.9	-93,284	-
중동	255,985	3.0	8.7	1,032,050	11.6	67.4	-776,065	103.6
아프리카	148,082	1.8	39.6	159,348	1.8	90.8	-11266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4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3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9개 품목 중 수출은 8개 품목, 수입은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는 광물성연료(90.5%), 기타(27.1%), 원료별제품(21.4%)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수송용기기(-1.2%) 1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출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기타(3.5%), 일반기계(3.2%), 전기기기(2.7%)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광물성연료(80.5%), 화학제품(42.2%), 원료별제품(38.9%) 등 9개 품목 모두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광물성연료(14.3%), 화학제품(5.0%), 원료별제품(3.6%)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3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8,460,031	100.0	14.7	14.7	8,874,137	100.0	31.2	31.2
1 식료품	92,324	1.1	6.3	0.1	722,309	8.1	22.0	1.9
2 원료품	148,336	1.8	5.2	0.1	619,030	7.0	16.6	1.3
3 광물성연료	157,930	1.9	90.5	1.0	2,173,634	24.5	80.5	14.3
4 화학제품	1,028,283	12.2	15.7	1.9	1,148,717	12.9	42.2	5.0
5 원료별제품	1,029,710	12.2	21.4	2.5	878,517	9.9	38.9	3.6
6 일반기계	1,737,222	20.5	15.8	3.2	722,078	8.1	5.3	0.5
7 전기기기	1,492,133	17.6	15.6	2.7	1,298,928	14.6	15.6	2.6
8 수송용기기	1,578,472	18.7	-1.2	-0.3	266,211	3.0	4.3	0.2
9 기타	1,195,622	14.1	27.1	3.5	1,044,711	11.8	12.4	1.7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4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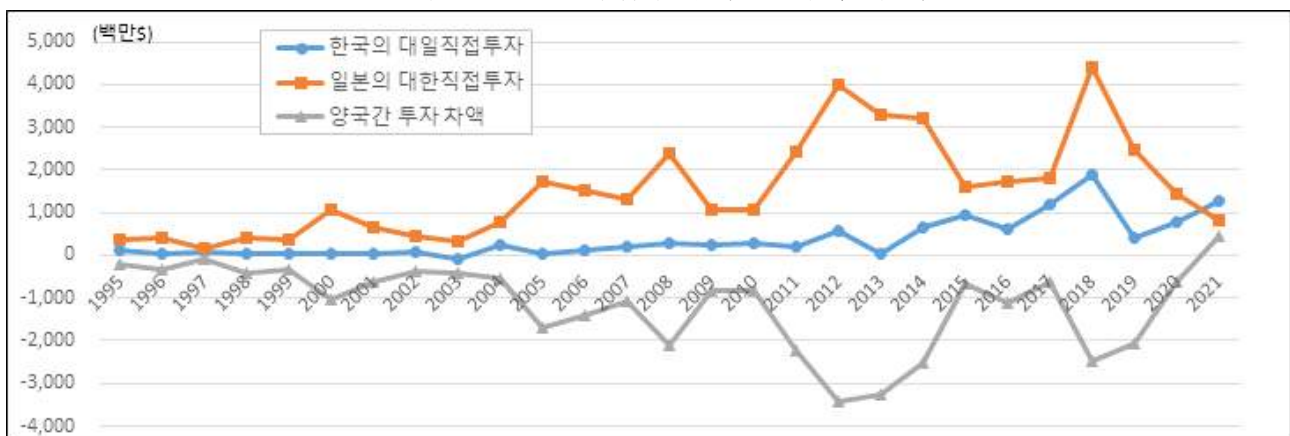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2021년에는 역전되었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2021년 경우도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한일간 갈등 및 COVID-19 등으로 연속적으로 전년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음
- 2021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12.60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273.25억 달러의 4.61%를 차지하였음
- 2021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8.25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498.14억 달러의 0.55%를 차지하였음
- 2021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보다 4.35억 달러 많았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12월		2022년 1월		2022년 2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18,134	2,955	6,988	4,768	7,613	2,604
한국 부분(억¥)	51	56	-229	69	-168	102
한국 비중(%)	0.3	1.9	-	1.4	-	3.9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2월 8일, 3월 8일, 4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2년 1월 6,988억 엔에서 2월 7,613억 엔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2년 1월 -229억 엔에서 2월 -168억 엔으로 마이너스 폭이 감소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2년 1월 4,768억 엔에서 2월 2,604억 엔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2년 1월 69억 엔에서 2월 102억 엔으로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1.4%에서 3.9%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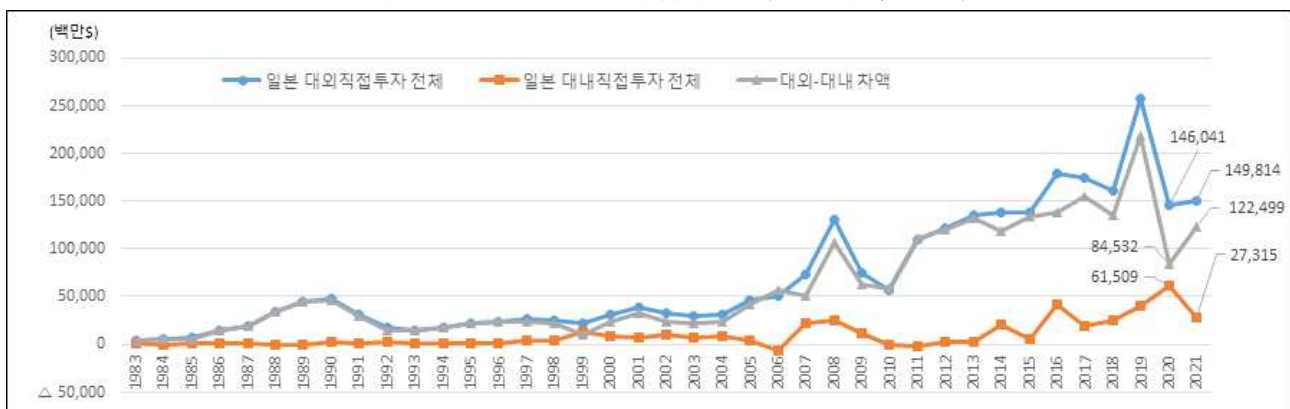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460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15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845억 달러로 되었음
- 2021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1,498억 달러,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273억 달러로 되었고,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여 1,225억 달러로 되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2년 2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7,613억 엔이었으며,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2,604억 엔이었음
-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7,613억 엔(실행 36,852; 회수 29,238)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아시아(49.3%), 북미(37.0%), 중남미(10.2%), 아프리카(7.1%)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유럽, 중동, 대양주는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2,769억 엔), 싱가포르(1,249억 엔) 등에 순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음
-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2,604억 엔(실행 27,197; 회수 24,592)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북미(89.7%), 대양주(29.7%), 아시아(19.9%) 등으로

부터의 투자가 많았으며, 유럽 경우는 순투자가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플러스 순투자가 큰 곳은 캐나다(1,560억 엔), 스위스(939억 엔), 호주(788억 엔), 미국(777억 엔) 등이었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2년 1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합계	36,852	29,238	7,613	100.0	27,197	24,592	2,604	100.0
아시아	8,332	4,574	3,757	49.3	5,690	5,172	519	19.9
중국	1,042	427	616	8.1	603	671	-68	-2.6
홍콩	381	371	10	0.1	735	855	-120	-4.6
대만	132	82	50	0.7	40	14	26	1.0
한국	81	249	-168	-2.2	120	18	102	3.9
싱가포르	4,128	2,878	1,249	16.4	3,570	2,945	625	24.0
태국	382	150	231	3.0	599	657	-58	-2.2
인도네시아	213	110	103	1.4	0	—	0	0.0
말레이시아	399	41	357	4.7	12	8	5	0.2
필리핀	157	31	126	1.7	—	0	0	0.0
베트남	867	102	765	10.0	3	—	3	0.1
인도	429	85	345	4.5	0	—	0	0.0
북미	14,821	12,005	2,816	37.0	9,297	6,959	2,337	89.7
미국	14,740	11,971	2,769	36.4	7,737	6,959	777	29.8
캐나다	81	34	47	0.6	1560	—	1,560	59.9
중남미	1,261	486	775	10.2	151	118	33	1.3
멕시코	295	130	165	2.2	—	7	-7	-0.3
브라질	111	125	-14	-0.2	—	—	—	—
케이만제도	471	16	455	6.0	77	75	2	0.1
대양주	404	406	-2	0.0	1,241	468	773	29.7
호주	293	318	-25	-0.3	1256	468	788	30.3
뉴질랜드	71	58	14	0.2	1	—	1	0.0
유럽	10,990	11,216	-226	-3.0	10,815	11,874	-1,059	-40.7
독일	1,816	1,861	-45	-0.6	1,813	1,602	211	8.1
영국	2,235	1,448	787	10.3	3,558	3,192	366	14.1
프랑스	335	426	-91	-1.2	285	343	-57	-2.2
네덜란드	643	2146	-1,502	-19.7	2,100	3,595	-1,495	-57.4
이탈리아	21	6	15	0.2	691	682	9	0.3
벨기에	2,190	1,735	454	6.0	478	423	55	2.1
룩셈부르크	1,532	1,350	182	2.4	117	19	98	3.8
스위스	87	101	-13	-0.2	1,292	353	939	36.1
스웨덴	69	150	-81	-1.1	22	30	-8	-0.3
스페인	17	1	16	0.2	99	98	1	0.0
러시아	157	13	144	1.9	—	—	—	—
중동	42	93	-51	-0.7	3	2	1	0.0
아프리카	1,003	459	544	7.1	0	—	0	0.0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4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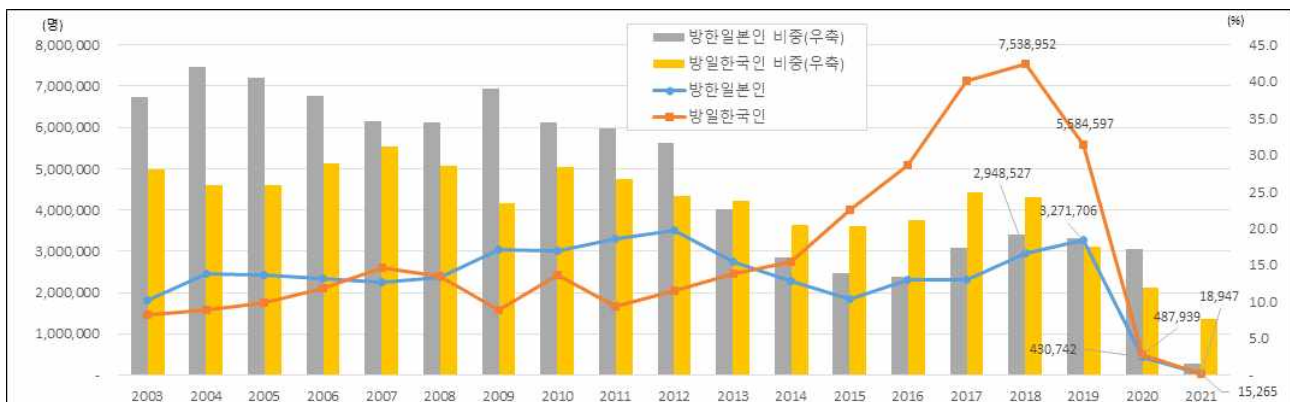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크게 감소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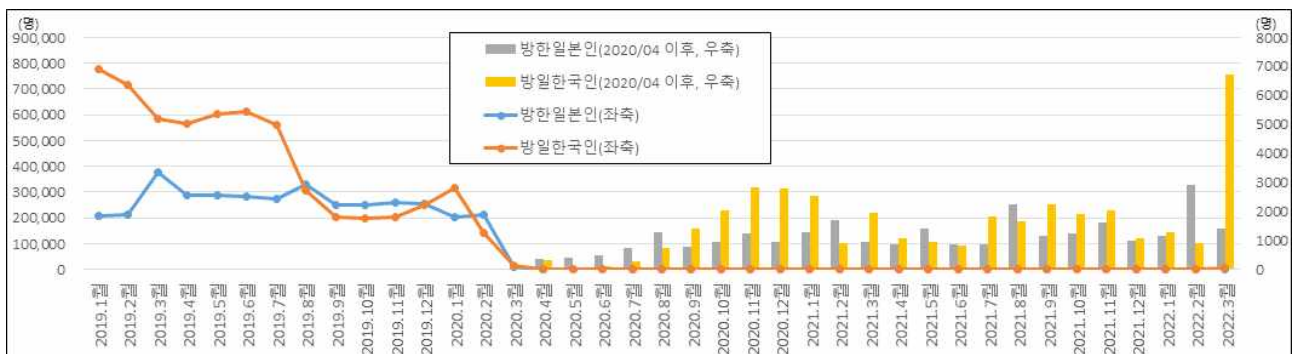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3,271,706명에 달하였으나,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430,742명으로, 2021년에는 15,265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9년 18.7%, 2020년 17.1%에서 2021년에는 1.6%로 감소하였음(방한외국인 총수는 2019년 17,502,756명, 2020년 2,519,118명, 2021년 967,003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38,952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감소하여 5,584,597명이 되었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487,939명, 2021년에 18,947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방일외국인 총수의 증가에 기인), 2019년 17.5%에서 2020년 11.9%, 2021년에는 7.7%로 감소하였음(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31,882,049명, 2020년 4,115,828명, 2021년 245,862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4월 872명, 5월 1,403명, 6월 875명, 7월 881명, 8월 2,258명, 9월 1,142명, 10월 1,237명, 11월 1,623명, 12월 1,007명, 2022년 1월 1,162명, 2월 2,934명, 3월 1,397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2,535명, 2월 910명, 3월 1,956명, 4월 1,076명, 5월 950명, 6월 835명, 7월 1,808명, 8월 1,647명, 9월 2,224명, 10월 1,921명, 11월 2,021명, 12월 1,064명, 2022년 1월 1,264명, 2월 900명, 3월 6,700명)

□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3월 상황

- <표9>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3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류인원이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19년동월대비 방한일본인 및 방일한국인 모두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모두 증가하였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3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1년3월	2022년3월	증감률		2021년3월	2022년3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74,604	96,768	29.7	전체	12,276	66,100	438.4
방한 일본인	949	1,397	47.2	방일 한국인	1,956	6,700	242.5
일본인 비중	1.27	1.44		한국인 비중	15.93	10.14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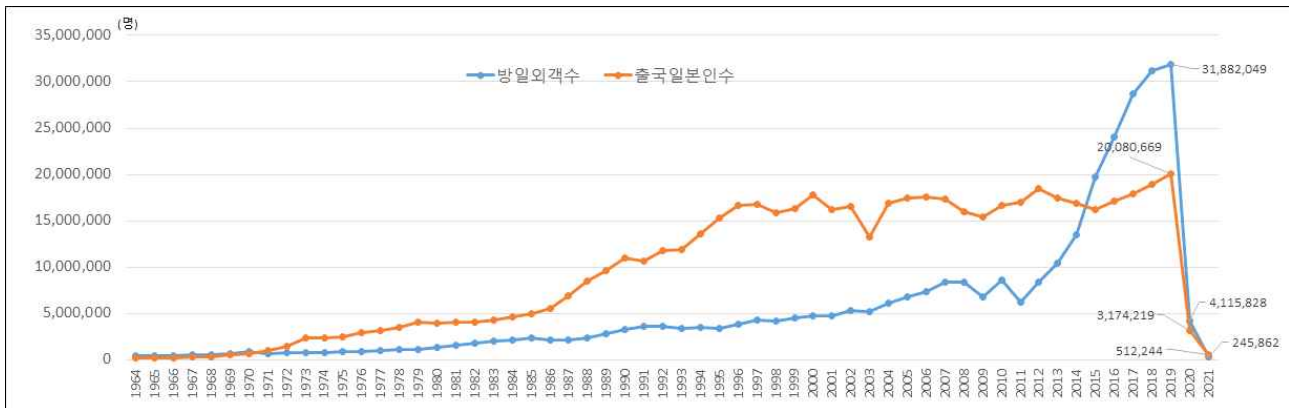
- 2022년 3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96,76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7% 증가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1,39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2% 증가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1년 3월 1.27%에서 2022년 3월 1.44%로 증가하였음
- 2022년 3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66,1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8.4% 증가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6,7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2.5% 증가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1년 3월 15.93%에서 2022년 3월 10.14%로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19년에 31,882,049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출국일본인수 20,080,669명보다 11,801,380명 더 많음
-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20년부터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모두 감소하였는데, 방일외객수는 2020년 4,115,828명, 2021년 245,862명으로, 출국일본인수는 2020년 3,174,219명, 2021년 512,244명으로 되었음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2년 3월 상황

- <표10>은 2022년 3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전체 수가 COVID-19 영향으로 2019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전년(2021년)동월대비로는 증가하였음
- 2022년 3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66,100명으로 2019년동월(2,760,136명)대비 97.6% 감소하였고, 전년동월(12,276명)대비 438.4% 증가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6,700명으로 전체의 10.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242.5%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9,800명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148.0%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2,500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352.9%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인도네시아인 수는 5,500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991.3%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필리핀 수는 4,200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1826.6%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베트남인 수는 10,100명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4,291.3%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3,200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481.8% 증가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2년 3월 상황

국가·지역	2019년 3월		2021년 3월		2022년 3월		2019년 동월대비 증감률 (%)	2021년 동월대비 증감률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전체	2,760,136	100.0	12,276	100.0	66,100	100.0	-97.6	438.4
한국	585,586	21.2	1,956	15.9	6,700	10.1	-98.9	242.5
중국	691,279	25.0	3,951	32.2	9,800	14.8	-98.6	148.0
대만	402,433	14.6	552	4.5	2,500	3.8	-99.4	352.9
홍콩	171,430	6.2	58	0.5	500	0.8	-99.7	762.1
태국	147,443	5.3	145	1.2	2,200	3.3	-98.5	1417.2
싱가포르	43,687	1.6	61	0.5	300	0.5	-99.3	391.8
말레이시아	50,615	1.8	99	0.8	600	0.9	-98.8	506.1
인도네시아	39,609	1.4	263	2.1	5,500	8.3	-86.1	1991.3
필리핀	48,277	1.7	218	1.8	4,200	6.4	-91.3	1826.6
베트남	47,881	1.7	230	1.9	10,100	15.3	-78.9	4291.3
인도	17,752	0.6	735	6.0	2,300	3.5	-87.0	212.9
호주	44,175	1.6	47	0.4	600	0.9	-98.6	1176.6
미국	176,564	6.4	550	4.5	3,200	4.8	-98.2	481.8
캐나다	37,959	1.4	48	0.4	400	0.6	-98.9	733.3
멕시코	5,740	0.2	23	0.2	200	0.3	-96.5	769.6
영국	38,610	1.4	157	1.3	800	1.2	-97.9	409.6
프랑스	29,408	1.1	87	0.7	800	1.2	-97.3	819.5
독일	28,659	1.0	79	0.6	700	1.1	-97.6	786.1
이탈리아	14,956	0.5	50	0.4	400	0.6	-97.3	700.0
러시아	8,916	0.3	83	0.7	300	0.5	-96.6	261.4
스페인	11,701	0.4	92	0.7	600	0.9	-94.9	552.2
중동지역	11,726	0.4	74	0.6	300	0.5	-97.4	305.4
기타	105,730	3.8	2,718	22.1	13,100	19.8	-87.6	382.0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Ⅳ.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2년 4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4월 21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20년	2021년	2021년 7-9월	2021년 10-12월	2022년 1-3월	2021년 12월	2022년 1월	2022년 2월	2022년 3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4.5	1.6	1.2	0.4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1.8	1.1	2.0	-0.2		-1.2	-0.7	-0.8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9.5	13.2	19.2	9.5		9.7	6.9	0.8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81.5 -9.9	85.6 5.0	86.7 7.2	85.5 6.1		83.8 4.2	82.0 2.1	87.2 6.3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5.5	-0.9	-9.3	-13.9		-12.3	-28.3	-11.8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11.7 -6.4	12.2 5.1	13.6 7.8	1.3 1.4		2.0 1.0	-4.0 4.8	2.7 P -0.9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0.4	5.6	5.4	0.9		2.2	-0.8	0.5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27.3	41.8	35.1	24.7					
<도산> 기업도산건수(건) 증감률	7,773 -7.2	6,030 -22.4	1,447 -28.4	1,539 -12.1	1,504 -3.2	504 -9.6	452 -4.6	459 2.9	593 -6.4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8	2.8	2.8	2.7		2.7	2.8	2.7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중합-고정기준)	-1.2 0.0	4.8 -0.2	6.1 -0.2	8.8 0.5	P 9.5	8.7 0.8	9.2 0.5	9.7 0.9	P 9.5
<금융> 넛케이평균주가(엔) 환율(엔/\$)	22,705 106.73	28,836 109.89	28,553 110.09	28,810 113.70	27,156 116.32	28,514 113.87	27,903 114.83	27,066 115.20	26,584 118.51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2년 2월, 3월, 4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수요측 통계인 ‘가계조사’ (2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2.8% 감소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2월)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대비 0.9% 감소하였음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고, 소비자 심리는 최근 약세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신차판매대수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가전판매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여행에서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외식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염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사회 활동이 정상화 쪽으로 향하면서 회복되어 갈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10-12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2021년 10-12월기는 전기 대비 3.4% 증가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기대비 3.4% 증가, 비제조업이 전기대비 3.3% 증가하였음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소프트웨어 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3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산업의 2022년 설비투자 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대체적으로 보합상태로 되어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 움직임에 담보상태가 보이고,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기업수익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주택건설은 최근 약세 상태임

- 자가주택 착공은 최근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착공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총 호수는 2월에 전월대비 6.4% 증가하여 연율 87.2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대체적으로 보합상태로 되어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당분간 약세 상태로 추이해 갈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최근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1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2.0% 감소, 3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13.6% 증가, 2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1.5% 증가하였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보정예산의 효과도 있어서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수입도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음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아메리카, EU 및 기타 지역 쪽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2월 방일외객수는 2019년 대비 99.4% 감소하였음
 -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아메리카 및 EU로부터의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되어 있는데, 2월 무역수지는 수입금액 증가로 적자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축소되었음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광공업생산지수는 2월에 전월대비 2.0% 증가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2월에 전월 대비 2.1% 증가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3월은 전월대비 3.6% 증가, 4월은 전월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회복되고 있고, 생산용 기계 및 전자제품·디바이스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경제 동향 및 공급 측면의 제약에 따른 하향 리스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황에 관해 의견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제3차 산업 활동은 회복 움직임에 담보 상태가 보임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이 남아 있는 가운데 비제조업의 일부에서 약세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선되고 있고,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회복 움직임에 담보 상태가 보이고, 도산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법인기업통계계보(10-12월기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12월기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24.7% 증가, 전기대비 17.4% 증가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22.1%

증가, 비제조업이 전년대비 26.4% 증가하였음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회복 움직임에 담보 상태가 보임
- 도산 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2월 459건 이후 3월은 593건으로 나타남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이 남아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약세로 움직이고 있지만, 구인 등에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2월에 전월대비 0.1% 포인트 상승하여 2.7%로 됨
 - 노동력 인구는 증가, 취업자 수는 보합상태, 완전실업자 수는 감소하였음
 - 고용자 수는 보합권내에 있으며, 신규구인 수는 수준은 여전히 낮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유효구인배율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으며, 제조업 잔업시간은 회복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는 최근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현금급여총액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으며,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음
 - 일본은행 短觀(3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부족초과로 나타남
 - 또한 당장의 상황에 관해서는 일일 유효구인건수나 민간의 구인 동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기대됨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기업물가는 최근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최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3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0.8% 상승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는 최근 상승하고 있음
 - 소비자 물가 기조를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 등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최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 (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3월에는 전월대비 1.1% 포인트 상승하여 92.8%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 등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당분간 완만하게 상승해 갈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하락 후 상승하였고, 엔/달러 환율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하였음

- 주가는 27,900엔 대에서 26,300엔 대로 하락하였다가 26,900엔 대로 상승하였음
- 엔/달러 환율은 122엔 대에서 127엔 대로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금리는 -0.02% 대에서 -0.00% 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에는 큰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0.5%(3월) 증가하였음
-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7.9%(3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3.5%(3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2년 4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4월 21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하고,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의 추진을 위해 노력함
- ‘코로나극복·신시대개척을 위한 경제대책’을 구체화하는 2021년도 보정예산 및 2022년도 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과 더불어, 3월 4일에 마무리한 ‘원유가격 급등에 대한 긴급대책’을 착실해 실행함
 - 나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유가격 및 물가의 급등 등에 따른 국민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에 긴급하고 기동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사태로부터의 경제사회활동의 회복을 확실히 하기 위해 ‘원유가격·물가급등 등 종합긴급대책’을 4월 중에 마무리함.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계속하는 조치가 취해져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함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경제안보법안 관련 동향

○ 경제안보법안 동향 및 내용

- 4월 6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이 가결되었음
- 경제안보법안의 핵심 내용은 공급망 국내 구축 강화, 기간 인프라 안전 확보, 첨단 기술 민관 연구, 특허 비공개 등으로 구성됨
- 정보관리를 강화하여 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막는다는 취지로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을 자국에서 강화하는 일도 염두에 두고 있음
- 반면 법안의 내용이 국가의 기업 경제활동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의 본격적인 심의가 4월 14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시작됐는데, 이에 대해 법안의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정령이나 성령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었음

(출처: 닛케이신문, 2022.04.06.; 아사히신문, 2022.04.06., 2022.04.15.)

□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 무역수지 적자 및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영향

- 일본 재무성이 4월 20일 발표한 2021년도 무역통계(속보, 통관 기준)에 의하면 무역수지는 5조 3,749억 엔의 적자로 나타났음
- 무역적자는 2년 만으로 적자액은 과거로부터 4번째로 높은 수준임
- COVID-19 재난으로부터의 경제 재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유 상승, 엔화 약세 진행에 의한 수입 급증이 주요 요인임
- 가격인상이 식품이나 일용품뿐만 아니라 건설강재에서 비료까지 폭넓은 자재에 미치고 있음
- 주택용 전자재 대기업인 다이켄공업(大建工業)은 건물이나 생산라인 설치에 필요한 강재의 가격급등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여 홋카이도에 건설 예정이었던 목질보드 생산공장의 사업계획을 연기했음
- 주택 설비 메이커인 타카라스탠더드(タカラスタンダード)는 4월 25일 수주분부터 주

력인 시스템키친 가격을 24% 인상하며, TOTO도 10월부터 유닛버스 등을 2~20% 인상하는데 이는 강판이나 수지의 매입가격 상승에 따른 것임

- 이외 니켈의 가격 급등으로 스테인리스제 조리기구의 가격 인상도 잇따르고 있으며, 비료 원재료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 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임

○ 수소 및 탈탄소 관련 동향

- 4월 9일 일본과 호주 간 액화수소를 운반하는 실증실험 기념식이 고베시에서 열렸음
- 이번 실증실험은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반선을 활용하여 타국 간에 대량운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와사키중공업 및 이와타니산업 등의 7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함
- 미래의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의 최대 과제는 비용으로, 선박 및 탱크를 대형화하여 운송비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일본-호주 간 시범운송은 향후에도 진행될 예정으로 가와사키중공업과 이와타니산업 측은 2030년경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
- 4월 20일 경제산업성은 공장 등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땅 속에 깊숙이 묻는 기술인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에 대해 2050년에 연간 1.2억~2.4억 톤을 저장할 방침임을 밝혔음
- 일본 경단련은 4월 26일 탈탄소를 향한 제언을 발표하였는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하며 탈탄소로 사용범위를 좁힌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차세대 소형 모듈원자로 (SMR) 등을 염두로 신설 방침의 명시를 요구하였음

(출처: 산케이신문, 2022.04.09., 2022.04.20.; 아사히신문, 2022.04.26.; 마이니치신문, 2022.04.30.; 요미우리신문, 2022.04.05.)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탈탄소화와 디지털화 및 첨단산업 동향

○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변화

- 많은 주요 기업들에서 탈탄소나 디지털화에 공헌하는 기술직 인재의 수요가 높아져 채용 경쟁이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점포 삭감 등으로 채용을 줄이는 업계도 있어 경영전략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음

-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따라 전기자동차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경우 기술자의 채용을 늘릴 예정임
 - 닛산자동차의 경우 기술직의 채용을 강화하고, 전동화 등의 실현을 한층 가속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야마하발동기의 경우 기술직 채용을 80% 가까이 늘릴 예정임
 - 반도체 관련 교세라그룹과 스미모토화학의 경우에도 기술직을 확대할 예정임
 - 반면 3대 메가뱅크인 미즈비시UFJ, 미즈이스미토모, 미즈호은행의 경우 디지털화를 진행시키는 한편,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일본 국내에서의 점포 감축을 진행시키기 위해 신규 졸업자 채용을 줄이며, 석유업체인 에네오스(ENEOS)와 이데미츠고산(出光興産)도 채용을 줄일 계획임
- 정보통신산업과 첨단산업 동향
- 소니그룹 산하의 소니무선커뮤니케이션은 4월 1일 로컬 5G(이동통신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고속 통신 규격인 5G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면허제도)를 이용한 일본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인 NURO Wireless 5G를 내놓았음
 - 가장 큰 장점은 집안 내 배선이 필요하지 않고, 전파를 송수신하는 홈 랜선 콘센트에 꽂는 것만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물리적으로 광파이버를 부설할 수 없는 집합주택에서도 고속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함
 - NURO Wireless 5G는 공동주택 벽면이나 인근 전신주에 소니 무선 기지국을 설치해 건물 전체를 통신 영역화함
 - 기지국까지는 광파이버를 사용하고 가까운 각 가정까지는 로컬 5G로 연결하는 것으로 라스트원마일(민간 및 기업에 대해 통신접속을 제공하는 마지막 구간)을 무선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함
 - 한편, 독일의 로봇 개발회사인 유나이티드로보틱스그룹은 4월 12일 소프트뱅크그룹(SBG)의 유럽 자회사와 함께 SBG의 인간형 로봇 페퍼 사업을 매수한다고 발표하였음
 - SBG는 커뮤니케이션 로봇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페퍼에서 보다 실용적인 배식(配食) 로봇 등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음
 - 소프트뱅크그룹은 일본 로봇 자회사 소프트뱅크로보틱스그룹(SBRG)을 통해 유나이티드사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일본 국내 페퍼와 이족보행 로봇 NAO의 판매 및 관리는 계속 SBRG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닛케이신문, 2022.04.06.; 아사히신문, 2022.04.13.; 요미우리신문, 2022.04.19.)

□ 일본 자동차산업 동향

○ 전기자동차 동향 및 자동차산업의 변화

- نيسان자동차는 4월 4일에 3월 하순으로 예정하고 있던 신형 전기자동차 ‘아리야 (Ariya)’의 표준모델 발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는데, 반도체 부족과 COVID-19 유행에 의한 부품 조달난으로 생산이 늦어지고 있다고 함
- 소니그룹과 혼다가 전기자동차 개발과 판매에 제후했음
- 자동차 업계는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임
- 전기자동차는 가솔린차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진입장벽이 낮다고 하는데, 자동 운전 등 IT산업과의 친화성도 높아 이업종에서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임
- 미국 IT 대기업인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의 개발 진행 외에도, 중국의 IT 대기업인 바이두 등도 참여하고 있어 많은 라이벌들이 있는 상황임
-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업계의 상황을 단번에 바꿀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도 전기자동차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일본 국내 약 550만 명의 고용을 지지하고 있으며, 수출 총액의 18%를 차지하는 일본 경제의 뼈대임
- 자동차업계는 완성차 메이커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산업구조와 넓은 저변이 특징인데 부품의 수가 적은 전기자동차에서는 그런 산업구조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소니와 혼다와 같은 이업종끼리 협력하는 것이 새로운 조류가 되면 산업의 저변이 옆으로 넓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임

(출처: 산케이신문, 2022.04.04.; 마이니치신문, 2022.04.22.)